

국악의 고장 남원서 '국악의 향연'

10월 '문화의 달' 맞아 기악 중주·무용·사물놀이 등 공연 잇따라 대한민국 국악대제향·LED 달빛춤판 퍼포먼스 등 행사도 다채

남원시가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국악공연을 잇달아 선보인다.

남원시는 오는 18일 오후 2시에는 김수영 명창과 국립민속국악원의 기악 중주·무용·사물놀이를 시작으로 오후 6시에는 기념식을 통해 왕기석·이난초 명창의 판소리 맞이공연을 연다.

19일 오후 2시에는 조선하·채원영·고운정·최영란 명창의 국악공연이 예정됐고 20일 오후 1시에는 송가영·정소정·임현빈 명창이 나와 남원의 혼과 예술을 가무악으로 펼쳐 낸다.

이와 함께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에서도 18일과 19일 오후 3시 2회에 걸쳐 '홍보가' 이야기를 제비들의 관점에서 풀어낸 무장애창극 '지리지'가 선보인다.

'제32회 강도근 전국 판소리 고백경연대회'도 19일과 20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며 19일 오후 4시에는 '홍보가 완장발표회'도 예정돼 있다. 안숙선명창의여정에서도 전통 국악의 맥을 잇는 공연이 펼쳐진다. 20일 오후 4시, 사물놀이 연희단 청연을 비롯해 아쟁 서영호 명인, 판소리 장문희 명창, 대금 오경수 명인, 장단 김경태 명인과 남원시립청소년국악단까지 출연해 문화의 달 소리여행을 선사한다.

남원은 판소리 '동편제'의 발상지이자 춘향가·홍보가의 배경이 되는 한국 국악의 성지이면서 고도의 역사문화가 있는 지역이다.

국악 분야 최고 등용문으로 꼽히는 '대한민국 국악대전'의 개최지로서 대통령상 수상자들을 비롯

해 수많은 명인·명창들을 배출했으며 남원시립예술단, 국립민속국악원 등 풍부한 국악 유산을 가진 고을이다.

'2024 문화의달 행사'는 이 외에도 ▲제19회 대한민국 국악대제향(18일) ▲LED 달빛춤판 퍼포먼스(18일-19일) ▲청춘마이크 공연(18일-19일) ▲애촌랩버스킹(18일) ▲온가족 힐링콘서트(19일) ▲클래식&팝스 콘서트(20일) ▲마당극 황희를 말한다(19일) 등 다양한 지역 예술단체 공연이 함께 펼쳐지며 10월의 남원을 공연문화의 도시로 만들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문화의 달 행사 기간 남원 곳곳에서 우리 가무악이 울려 퍼져 행사장을 찾는 관객들이 어디서든 볼 수 없는 수준 높은 명창들의 공연을 맘껏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전통예술의 뿌리인 국악의 본고장 남원을 느끼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에 전북 첫 장애인 위한 스크린파크골프장

곰두리스포츠센터 내 설치 장애인 교류·신체 활동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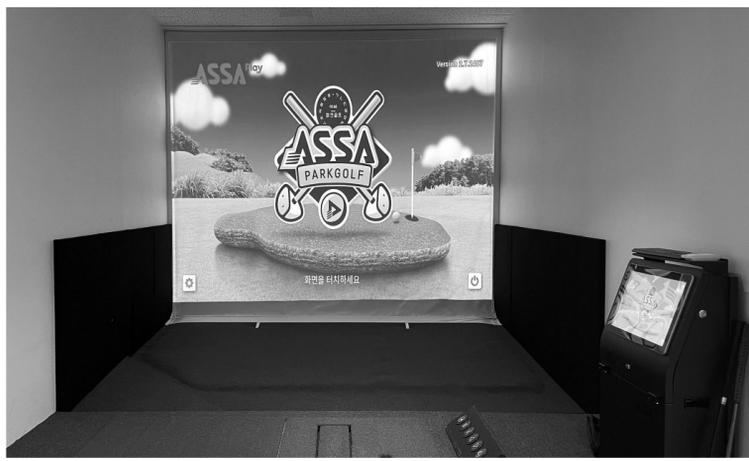
전북 최초로 장애인을 위한 스크린파크골프장이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곰두리스포츠센터에 들어섰다.

정읍시는 스크린파크골프장은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신체적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교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10일 밝혔다.

곰두리스포츠센터 스크린파크골프장 설치의 장애인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의 새로운 장이 필요하다는 정읍시의회 박일 의장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박일 시의장은 "스포츠 활동을 즐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스크린파크골프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역 장애인들의 복지와 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크린파크골프장은 곰두리스포츠센터 파크골프 프로그램 이용자와 장애인체육회 선수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곰두리스포츠센터에 설치된 스크린파크골프장.

내년부터는 프로그램 이용자를 확대하고 장애인파크골프협회 회원에게는 무료이용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시설원에 평가 '우수지자체'

남원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시설원예사업 평가에서 시·군 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며 스마트농업 분야 우수 도시로 받들음했다.

남원시에 따르면 관내에는 시설면적 973ha, 온실재배 능가수 2181명으로 최고 수준의 시설원예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또 시설하우스 설치지원, ICT융복합 지원, 시

설원예현대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등 연 1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 추진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스마트농업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46개 시군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률과 사업 수행도를 살피는 정량평가와 지원체계 구축 및 사업확산 노력을 평가하는

정성평가를 통해 진행됐고 남원시는 모든 항목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지자체에 선정됐다.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과의 협업을 통해 농가 기술보급 및 스마트팜단지 구축, 현장 소통을 통한 농업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기술지도 협업도 이번 평가에서 호평을 받았다.

시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에 국비 인센티브를 추가 확보하게 됐으며 스마트팜을 실현해나가는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고창군, 공모사업 잇따라 선정

7가지 유네스코 보물 탐방 자전거길 조성

국비 5억 확보...단절구간 연결·시설 정비 등 추진



고창군이 조성할 자전거길 노선.

고창군이 행정안전부의 '2024년 자전거 모범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

고창군은 공모선정에 따라 확보된 국비 5억원을 포함 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내에 7가지 유네스코 보물을 탐방하는 자전거 노선을 구축할 예정이다.

군은 우선 읍내 생활권에서 고인돌 유적지까지 9km 구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

결과 요철·파손 정비 및 자전거도로의 안전시설 확충에 나선다.

이어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을 위해 내년부터 자전거노선 구축과 함께 문화시설 입장료, 숙박 시설 할인 및 자전거 생태관광 투어, 자전거 수학여행 프로그램 추진 등 특색 있는 자전거 모범도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유아친화형 체육센터' 국비 30억 확보

2028년 상반기 완공 목표

고창군이 '자전거 모범도시'에 이어 '유아친화형 체육센터'까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에 연속 선정됐다.

고창군에 따르면 군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아친화형 체육센터' 공모에 선정,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

군은 지방비 68억원을 더한 총 98억원을 들여 고장을 월암리 스포스타운에 연면적 1864㎡, 지상 2층 규모로 다목적체육관, 실내놀이터 등을 건립한다. 이에 맞춰 내년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에 착공해 2028년 상반기

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유아친화형 체육센터 공모는 올해 시작된 문체부 신규사업으로 최근 영유아들의 체육활동 수요 증가 등 연령별 체육시설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신청한 고창군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공모에 선정됐다.

지역 어린이집·유치원 등과 연계해 날씨와 관계없이 다양한 놀이와 체육활동이 가능한 시설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창군의 잇따른 공모선정은 최근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 기조 속에서도 국가예산 확보의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농협, 1000만원 상당 라면 기탁

정읍농협이 주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1000만원 상당의 라면을 시에 기탁했다.

정읍시는 정읍농협이 자체 농촌사랑기금을 활용, 1000만원 상당 라면 321상자를 시에 기탁했다고 10일 밝혔다.

기탁된 라면은 내장상동, 수성동, 시기동, 연지동 등 4개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하는 '희망 나눔 공유냉장고'로 전달될 예정이다.

유남영 정읍농협 조합장은 "소외된 이웃들이 공

유망장고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번 기부를 진행했다"며 "정읍농협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주신 유남영 조합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며 시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